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총회

발행인 : 이 중 운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동구권 목회자 초청 세미나 통해 북방 선교의 교두보 놓다

KIMCHI 세미나 오늘 폐막



기독교계의 특별한 관심과 "공산권 교회 교류의 첫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KIMCHI 세미나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지난 주일, 교회학교 각 부서의 집회 시간과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신앙 체험을 전해 주었다. 월요일

부터는 영적 갱신과 교회 성장, 선교, 소그룹 운동, 교회학교 교육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훈련을 받았다. 또한 나라별로 선교 전략 회의를 열고 자국 선교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학 대학과 기독교 대학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신학 교육 전반에 관한 브리핑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세미나 참가자들은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충현기도원으로 가서 이번 세미나를 평가하고, 기도 훈련을 통해 복음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KIMCHI 세미나는 오늘 저녁 7시에 토마스 왕 목사의 설교로 폐회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친다.

18일은 추수 감사 주일

돌아오는 11월 18일은 추수 감사 주일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축복을 되새기며,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때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18일에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주일 I, II, III, IV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거행되고,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써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서별로 성경 암송 대회, 찬양부르기 대회, 조별 친교 모임 등을 가질 예정이다.

대학부 17일에 가족 초청 잔치

대학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는 11월 17일(토)에 가족 초청 잔치를 연다.

이 잔치는 갈릴리홀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오후 4시에 시작하는데, 회원들은 목사님들과 선배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사명들을 발견하게 된다.

대학부 학생들은 이 잔치를 위

하여 시화전과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 소그룹들의 발표, 찬양, 레크리에이션, 조별 만찬도 있을 예정이다.

이 잔치를 통하여 대학부 학생들과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의 지체됨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다.

북방 선교를 위한 특별기도회 끝나



지난 11월 5일 새벽 5시부터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불씨"라는 표어 아래 전개되었던 북방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어제 막을 내렸다.

이 새벽 기도회는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사랑의 전화 결기를 통하여 남녀 전도회의 주관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했다.

성도들은 이 기도회에서 무신론의 압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 북방의 많

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조속히 교회를 재건하고 그곳에 복음이 확장되도록 기도하였다. 특히 KIMCHI 세미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어, 이것이 북방 선교의 초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루 속히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기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였다. 또한 공산권에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찬양 통해 부흥하는 중등부

중등부는 요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나사렛홀에 모여 찬양 집회를 갖고 있다.

이 찬양 집회는 지난 여름 수양회를 마친 후, 수양회에서 얻은

영적 체험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집회이다.

이 집회는 중등부의 지도를 맡고 있는 김은태 목사의 설교와 그

후에 이어지는 찬양을 통해, 계속적인 음악에 휩쓸리기 쉬운 학생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90년도 제자훈련 10월 26일에 모두 마쳐

지난 3월 22일에 시작되어 10월 26일에 끝난 90년도 제자훈련은 "천국일꾼이 되자"라는 주제 아래 지난 봄에 열린 차례, 가을에 세 차례 등 모두 열네 차례로

나뉘어 충현기도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제자훈련은 직분자 뿐만 아니라, 91년도 신입 직분자 총 2,724명 가운데 2,393명이 수료

하였다.

91년도 제자훈련은 내년 3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일부 부서 사무실 이전

사무행정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종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소석관 102호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 일반 성도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무국에 용무가 있는 성도들은 테이프 보급을 하고 있는 서점 쪽으로 나있는 창문을 통해서 용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새로 신설된 기획조정실은 소석관 103호와 112호를 사용하고, 성경연구원, 제자훈련원, 성장연구원은 소석관 104호로 이전한다.

종전에 선교관 4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던 기획위원회도 소석관 103호로 이전한다.

장년 2부

달란트 발표회 가져

장년 2부는 오늘 오후 12시 50분부터 소석관 414호에서 달란트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도 목사인 박형용 목사의 간단한 설교가 있는 뒤 있는 이 시간에는 간증과 성경 암송, 시와 찬양을 발표하여 서로의 재능을 확인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갈리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가야의 총독인 그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여 재판정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갈리오는 사도 바울이 국법을 어기거나 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 문제로 고소당했음을 알고 법정에 몰려든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행 18:14~16).

갈리오의 어떻게 보면 매우 현명하고 기독교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법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당장 소스테네스가 유대인들로부터 구타당하는 것도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자리만 차지하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남이 일 하는 뒤에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북방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 설교 요지

이 종 윤 목사

첫째날(11월 5일)

성도의 바른 자세 (행 18:12~17)

갈리오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성도끼리 서로 송사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동족을 고발했을 뿐 아니라,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행 18:17). 폭력은 이유가 어떻든 비신앙적

이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앙상의 문제로 고소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본문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신앙적인 문제 이외엔 사회에서 비난을 받

고린도전서 17장 19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더불어 일하는 부부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모든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막 잡는 일에 종사했으므로, 특히 이사를 많이 하였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날(11월 6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행 18:18~23)

(고전 16:19).

사람들은 흔히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도자를 존중하여 여가 사도들과 협력하는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만 존경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종들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왔습니다.

그들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났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세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

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며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어려움을 건디며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바울의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없는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우리들은 갈리오같이 미지근해서도 안되고, 유대인들처럼 불의해서도 아니됩니다.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가시밭, 고난 가운데서도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승리의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으로 초대하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후일에 아볼로가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교역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존경이 가능하며, 복음 전도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할 줄 아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을 발견하고는 아홉 가지 장점을 무시하거나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개량하고 야량으로 받아들이다면, 숨겨진 좋은 점들이 더 크게 나타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작게 폄하하여 하나님의 도를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즉 이들은 아볼로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볼로의 장점인 박식함과 성경에 능동함과 뛰어난 웅변술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준 야량, 포용성은 하나님에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볼로의 단점을 보충해 준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서 아볼로의 위대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그가 천막 잡는 사람에게 배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셋째날(11월 7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행 18:24~19:7)

데 아볼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도를 겸손히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 쏠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는 배우려는 열심, 배우려는 열심, 전도하려는 열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그곳 교인들은 성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행 19:2).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질문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즉 죄 씻음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함을 의미합니다(골 6). 또한 우리들은 "나에게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죽으신 후에 또다 큰 보혜사가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요 14, 16). "보혜사"란 내 곁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므로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의적으로만 알고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고전 12:3).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습니다(눅 6:43, 44).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화평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 기초해야 하며, 절제 없는 성령의 열매 또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받았으나 열매가 없으면 심각합니다. 성경에는 열매없는 나무 앞에는 도끼가 이미 놓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모두를 맺어야 합니다.

외국 교역자들과 믿음의 교제

(Stanislav Kaczmarczyk ·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최근 복음 전파 활동이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토마스 왕 목사님과 이종운 목사님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하신 이후로는 더욱 적극적이 되었고 한국의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격려를 받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는 9세기 경에 복음이 들어왔고 다른 서구 사회처럼 15세기에 종교 개혁을 겪었습니다. 20세기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억압 정치가 시작되었고 30년간 혹독한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독립 국가가 되었고 작년까지 공산주의에 의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대전 기간에는 많은 주의 종들이 집단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가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리라 믿

했지만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공식적인 종교 캠프 활동이나 젊은이들의 복음 사역들은 금지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은 토마스 왕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과의 모임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강의받았는데 교수들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며 이곳 서울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KIMCHI세미나 참가자들의 신앙 체험기

(지난 11월 4일에 KIMCHI 세미나 참가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간추려 실는다.)



저는 교회가 없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쟁 때 예수님을 믿고 고향에 돌아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나에게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삶이 참으로 진실된 삶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무신론의 체제 속에서 성도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피부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저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공산당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더욱 민족주의적인 가톨릭교와 그리스정교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요.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두터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을 무너뜨리려면 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의 좋은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사회를 위해 선한 일을 할 평신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항상 교회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이었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16살 때 세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흘렀습니다.

그들이 제게 기쁨이 넘치는 신자가 되길 원하냐고 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게 다가와 뜨거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제

서야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얼굴도 그들의 얼굴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할 때도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헝가리의 사회는 전통이 큰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등과 같은 좋은 전통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나 찬양을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헝가리의 교인들은 그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헝가리의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고, 제대 후 집에 돌아온 나는 누나의 새로워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누나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누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냐는 나의 질문에 '너는 창조물이며, 죄인이고, 죄인의 상태에 계속 머무른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죄사함, 영생 등에 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죄를 고백하고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KIMCHI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더욱 충성스럽고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이기에 사회적 소외감 느껴

(Stevo Dereta · 유고슬라비아)

누나의 도움으로 거듭난 인생

(Pavle Cekov ·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한 송 규 집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다. 때문에 우리는 일거일동을 삼가 조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을 이기고 욕심을 자제하며, 각자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하루 일과를 돌아볼 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속된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1967년 충현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나는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생활을 하였

다. 물론 이끌어 주는 천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 생활을 계속하던 중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게 되었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 후부터는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성도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신앙이 자라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성도들은 누구든지 질서를 지킴으로써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기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이 간혹 있다.

예배 시작 전, 교역자님 또는 안내하는 분들이 일일이 '안쪽으로 당겨 앉아 주세요.'라고 해도 의자 입구에 앉아 좁은 공간에서 몸만 움직여 주는 일은 좋은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도 주님앞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한민족이라면 나를 포함하여 누구나 일본인들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지난 아시아 선교대회 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는데, 자기 민족끼리 서로 손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중에 어떤 남자 한 분이 큰소리로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 일본 성도였다. 그분이 성직자인지 평신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의 한 맺힌 마음이 녹아 내렸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많은 일본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일을 회개하고 그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다.

어제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신호에 의하여 그 버스는 잠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버스 운전사가 느닷없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더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 짧은 신호 대기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전도한 후, '감사합니다. 관히 잘 모시겠습니다.'하고 계속 운전하는 그 기사님의 얼굴에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함을 얻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교회는 구제와 교육과 선교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서 마음에 참 자유를 얻을 때만이 구제와 교육과 선교의 세 기둥의 터위에 참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다음호 새기둥은 이병욱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본 KIMCHI 세미나

“2천년대를 향한 우리의 도전”



“공산권 교회 교류의 첫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은 KIMCHI 세미나는 지난 11월 2일 저녁 7시에 개최되었다. 개회 예배 때는 김정인 원로목사의 설교, 시온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KIMCHI 세미나에서는 국내외의 유망의 강사들이 초청되어 동유럽 교회의 재건과 선교에 대한 열네 차례의 강연이 있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4일 중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국가별로 모임을 갖고 자국 복음화에 대한 선교 전략을 논의하였다.



세미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광복을 향한 성장을 하고 있는 시내 교회들과 신학교, 기독교 대학, 산업시설 등을 방문하였다.



KIMCHI 세미나 기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열린 북방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에도 참여했다.



4일에는 교회학교의 각 부서로 찾아가 성도들에게, 공산 체제 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일들을 전하였다.



3일 저녁에 있었던 환영회.



우리 교회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세미나 참가자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45 과 여섯째 기원

성경 : 마 6 : 9~13

요절 :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 : 40 下~41 上)

찬송 : 423, 443

제 106 문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원은 곧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에 이르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우리를 도

와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설 명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죄악에 굴복할 만한 사단의 유혹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강력하고도 교활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말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질 문

1.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약 1 : 13)?
2.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누가 도우십니까(히 2 : 18)?
3.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4.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마 26 : 41)?